

## 2012 12.09 대림 제 2 주일

**제 1 독서 :** 바룩서 5,1-9 <하느님께서 너의 광채를 드러내 주실 것이다.>

**제 2 독서 :** 필리피서 1,4-6. 8-11 <여러분은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십시오.>

**복 음 :** 루카 3,1-6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대림** 둘째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제 1 독서 바룩서에서 예언자는 “ 예루살렘아,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에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입어라.”하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님들께도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경제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거기다가 도둑들이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치상황을 보면 더욱더 희망이 안보이는 듯 싶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자 감세를 외치며, 일 이십만불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내라는 정책을 추진 하려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는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25 만불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정이 없지만 이웃 OLPH 나 샌프란시스코성당에는 그만한 소득을 올리는 가정들이 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히스패닉공동체에는 실제로 한달에 500-1000 불정도의 소득으로 5 명정도의 가족들이 함께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자들은 왜 내가 힘들게 번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나며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자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지요. 부당한 방법으로 웰페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정직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도둑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돈을 보관하기에는 집보다는 은행이 안전 한것 같지만, 은행도 믿을 만한 곳이 못됩니다. 하늘에 재화를 쌓으십시오, 그렇다고 성당에 돈을 많이 내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삶속에서 길거리에 나앉아본적도 있습니다. 가난으로 삼사일, 끼니를 굶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가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품, 내 영혼이 쉴수 있는 하느님의 품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 참으로 평화를 느끼게 하여주곤 하였던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고프고, 지금 어려움이 점점 더 가중 될수록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 가십시오. 어린이 성가대를 가르치면서 학생들과 대화를 하며 느끼게 되는 것은 학교에서는 이제 인성 교육이 실종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에서는 우리 입에 풀칠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만,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만, 인간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사랑을 나누어 가며 살아야하는지를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질주의,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를 가장 빨리 답습하고 있는나라가 한국인 듯싶습니다. 우리아이들이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지? 를 이제 더이상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제 2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께서는 필리피인 들에게 말씀하십니다. “ 형제 여러분 기도 할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하는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 입니다. 옳지 못한 것들은 바로 잡아야 할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기도를 청하여야 할것입니다. 오늘 루카 복음에서 복음사가는 세례자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은 왜 광야로 나갔을까요? 광야는 바로 하느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갖게 되는 피정 역시 현실을 잠시잊고 하느님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느님 안에서, 그분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바룩서의 말씀입니다. 5,1-9

1 예루살렘아,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 버리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입어라.

2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의 걸옷을 걸치고, 영원하신 분의 영광스러운 관을 네 머리에 써라. 3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어디서나 너의 광채를 드러내 주시고, 4 ‘의로운 평화, 거룩한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너를 부르실 것이다.

5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동쪽으로 눈을 돌려 보아라. 네 자녀들이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까지 사방에서 모여드는 것을 보아라.

6 그들은 원수들에게 끌려 너에게서 맨발로 떠나갔지만,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왕좌처럼, 영광스럽게 들어 올려 너에게 데려오신다. 7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당신 영광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높은 산과 오래된 언덕은 모두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셨다.

8 하느님의 명령으로 숲들도 온갖 향기로운 나무도, 이스라엘에게 그늘을 드리우리라. 9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에게서 나오는 자비와 의로움으로, 당신 영광의 빛 속에서 이스라엘을 즐거이 이끌어 주시리라.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1,4-6.8-11

형제 여러분, 4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5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8 사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애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9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10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1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6

1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십오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래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래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2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르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3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4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5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6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